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1>



호박범벅경과 국수경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 때 수많은 스님들이 다름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는 서로가 그 죄에 대해 벌을 주느라 다시 육신각신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스님들은 한참 말싸움을 벌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의 법에 어긋나는 여러 죄를 범하였지만 오히려 말싸움이 일어났다. 우리끼리 죄를 범하는데 육신각신 다름이 인다면 이로 인해 싸움이 더 깊고 무거워진 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싸움을 없애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대중들이 이로 인해 불안해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휩싸인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명쾌하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물로 땅을 덮듯이 하라. 그래서 다름을 없애면 된다.”(사분율>3권)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의 일입니다.

아주 예민한 현안에 대한 논문 발표와 논평의 순서가 모두 끝났을 때 나는 좀 불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발표하는 발제자의 견해가 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그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잠시 뒤에 다른 논평자와 침어한

발전적인 길을 찾기 보다는 패하여 무릎을 꿇는 상대방을 보며 승리감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관음기도를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 ‘관세암보살...’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객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관세음보살을 왜 관세암보살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스님은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천만에요, 관세암보살입니다”라고 우겨냈습니다. 두 스님은 ‘관세음이 옳다’ ‘관세암이 옳다’ 라고 싸우다 결론을 내지 못하여 결국 큰 스님께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큰스님은 다음날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세암보살’이라 주장하던 스님은 은근히 격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호박범벅죽을 남몰래 쑤어다 큰스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다음날 꼭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관세음보살’이라 우기던 스님이 국수를 가져와서는 자기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고 날이 밝아서 찾아온 두 스님을 앞에다

두고서 큰스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박범벅경에 보니 관세암보살이라고 나와 있고, 국수경을 보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말씀을 마친 큰스님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를 뜨셨습니다.<육십을 버리는 방법> 월우스님 지음, 민족사, 78-79쪽

어떻습니까? 큰스님의 처사가 조금도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절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뒤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비를 가려야 할 모든 경우가 바로 그러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벌어진 상황을 수긍하고 그 자리에서 최적인 선택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길을 찾아내어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간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본질의 현장을 일단 넘어선 뒤에 차분히 돌아보면 시시비비도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범행 스님

(법주사 · 팔달사 조실)

최신 기요가 울러 퍼지고 울 거를 유행을 예고하는 형형색색의 옷과 액세서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수원 팔달로 로데오거리. 젊은이들의 들뜬 열기로 가득한 로데오거리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도심수행도량 팔달사를 만날 수 있다. 길 하나 차이로 거리의 번잡스러움은 간데없고 산사의 고요만이 팔달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 팔달사를 40여 년간 지키고 있는 조실 범행 스님은 전날인 11월16일 법주사에서 결계법어를 내리고 온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청하는 자리를 물리치지 않았다.

진성은 들들지 않아 본래 원만한 성품이고(眞性無染本自圓性) 다만 망령된 생각을 여인 즉 부처와 같으니라(但離妄念則如如佛)

어제 법주사에서 결계에 드는 수행자 200여 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구도의 길을 걷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행자들이 결계 기간 동안 ‘본래 자기’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계송을 들려줬습니다.

결계에 들지 않는 재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성(本性)은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무명(無明)에 싸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지구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에는 곤충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초목 과수도 아름드리 우거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과일, 좀 더 많은 곡식, 좀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없는 사람에겐 보시하고 욕망 바로 보고 인욕하며 수행에 힘써 마음 고요히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범행 스님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사람은 늘 속을 썩게 마련”이라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말한다.

농약을 쓰고 비료를 주고 땅을 파헤치면서 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인 땅이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妄想) 공상(空想)에 사로잡혀 탐진치(貪瞋癡)와 오욕락(五欲樂)에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욕심을 끝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뤄지지 않으니 성내는 마음, 즉 진심(眞心)이 생기게 되고 이 진심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어리석은 마음 즉 자심(自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제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런데 사람들은 욕심대로 안 되면 부처님께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이뤄주십시오’ 하고 자꾸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버려라’는 것인데, 왜 자꾸 부처님께 바라고 이루어 합니까?

하루 밥 세 그릇 이상 있으면 오히려 귀찮은 겁니다. 재산을 잔뜩 집에 쌓아놓으면 도둑맞을까 걱정만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속을 썩게 마련이고, 늘 ‘살기 힘들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탐심(貪心)을 내지 말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Advertisement for 'Gukbu-da Cheongmaru' (국부대청마루)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It includes a large image of a wooden table, a smaller image of a bench, and a set of 41 pieces of traditional Korean dinnerware (Inhwa-mun). Text describes the quality of the wood and the craftsmanship. A table at the bottom lists different sizes and prices. A phone number 080-999-1080 is prominently displayed.

왜 달라고만 합니까?

할까요?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조금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들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닦아야 합니다. 계를 지키고 없는 사람에게 늘 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바로 들여다보고 인욕하며, 수행에 힘써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부처님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는 보시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나눠주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늘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수행이라고 하면 참선이나 간화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외도(外道)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선 외에도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저는 그동안 수차례 법문을 통해 제가 불문(佛門)에 들어와 수행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자집 육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 데 몸이 너무 약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멀리한 채 화학공장을 경영했습니다.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하루는 실험을 하다 공장에서 열소가 터지는 바람에 폐가 나빠졌어요.

우리 집안은 아버님과 두 형님, 작은어머니까지 모두 폐병으로 돌아가셨기에 폐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살다 젊은 나이에 각혈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에 뛰어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구사일생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 후 요양이라도 할 생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10권을 싸들고 금산 태고사를 찾아 갔어요. 당시 태고사에는 포산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스님과 3주 동안 문학과 철학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부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배운 문학이나 철학이 가진 한계를 뚜렷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지요.

출가 후 포산 스님은 저에게 입장을 소멸하기 위해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摩訶陀羅尼)'를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생사의 위대한 법을 일러주시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자 참도 지지 않고 다라니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5주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주처(主處)였던 일본인의



"인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한 생을 바쳐서라도 도를 깨지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범행 스님.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근기에 맞는 수행법 찾아

지극한 마음으로 매진

사가 나타나 '이제 다 나왔구나. 아주 잘 됐다'고 말하던군요. 깜짝 놀라 잤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기운이 나고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피력으로 지금껏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서울 선학원에서 조실로 계시던 금오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됐는데, 스님은 늘 '참선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주력 수행에만 매진했던 터라 처음엔 참선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자 틀림이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공주 마곡사의 토굴에서 정진하게 됐는데, 그때 참선이나 주력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늘 불자들에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매진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통한다고 말합니다.

열불이든 주력이든 참선이든 자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지극한 마음으로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도(道)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생애도 제대로 모르거나 경전 한 줄 읽지 않는다면 어찌 큰 가르침을 얻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참선한다고 벽만 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그리고 스님들이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경전이나 선어록을 봐도 모르던 부분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깨쳐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깨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깨친다'는 것은 인연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흔히 불자들은 '인연이 없다' '인연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을 하며 인과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연법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인연, 즉 직접적인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緣)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因果)라고 하지요. 인과란 철저한 것입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과거가 궁금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똑바로 보면 됩니다. 불교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신봉력 있는 종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생을 버려서라도, 한 생에 이를 수 없다면 누생(累生)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치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부처님께 복 빌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참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것만이 크나큰 부처님의 자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백재현 기자

“자연 사랑하고 오후불식하는 것이 건강비결”

범행 스님은

"난 풀들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풀들이 날 보고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풀 한 포기씩 뜯거나 나뭇가지를 잘 때 '애들아, 미안하다. 이걸 잘라야겠구나' 하고 얘기해요."
전날 법주사까지의 장거리 이동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행 스님은 기자를 데리고 직접 사찰 곳곳을 안내해주셨다. "호랑이 담배 피는 모습"

이 담긴 사찰 벽화와 씨앗으로 심어 지금은 아름드리로 자란 은행나무, 전국 곳곳에서 모종을 얻어와 심고 가꾼 백묵단·작약 등을 일일이 일러주던 스님은 "거짓없는 자연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든 다섯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맑고 깨끗한 얼굴빛을 간직한 스님에게 건강 비결

을 여쭙자 "특별히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은 없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오후불식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답하셨다.

192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55년 부산 범어사에서 증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55년 봉은사 주지, 56년 선학원 중앙선원장, 57년 서울 조계사 주지, 68년 불국사 주지, 71년 대한불교신문화 사장, 75-91년 재단법인 선학원 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팔달사와 보은 법주사 조실을 맡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파우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정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비어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최후의 안목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결화기에서 연신화기를 이루어 연신환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지 및 필단사용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식 : 180,000원
- 참선방식 : 145,000원
- 절방식 : 75,000원
- 건강좌목방식 : 94,000 ~ 98,000원
- 지동차방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어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간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파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파우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편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에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에간하이텍)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강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임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전환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화자에 불과했던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임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말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 출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임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좌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들이 젖어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강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줍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수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보리행론

<임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좌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 제 5장 호계 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임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선명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	A팀 :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라-다람살라-델라-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라-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르나-바이살리-쿠시나기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라-인천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강사원 대법당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던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속스님 061-662-1607)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옆)